제 119 호 (1975年 6月20日 文公部登錄 라—1914 號) 韓 國 生 藥 報 (월간) 1987 년 8 월 20 일 【 2 】

淨化特輯

호화혼수、이대로 좋은가

〈전호에서 계속〉

호화혼수는 과거에도 망국의 풍조였다。

최근덕: 책을 읽다가 아주 묘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고려 말엽이나 조선의 연산군시대에 지금과 같은 호화혼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려때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풍조를 보면 해방후 우리가 미제를 선호하듯이 당화(唐貨)나 당물(唐物)、즉 당나라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읍니다。 특히 혼수에 당물을 넣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당시의 식자층에서 「망국의 풍조」라고 개탄을 했는데 정말 고려가 망했어요。 그후 조선초기에는 그런 풍습이 없어졌읍니다만 연산군시대로 오면 다시 당물에 대한 숭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사대부 집안의 혼수에는 당물이 끼이곤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아파트 열쇠와 같은 거지요。 아뭏든 그런 풍조가 만연되는 가운데 연산군은 정권을 잃게 되었지요。

전 그같은 기록을 읽으면서 이마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읍니다。 내것이니까、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쓰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그 시대상의 반영이며 병리현상의 표출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요。

배성심: 저희 단체에 법률상담실이 있는데 혼수가 문제가 되어 파혼하고 예물을 전부 돌려주는 사태까지 벌어진 케이스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남자는 고시 양과에 합격한 엘리트인데 집이 상당히 빈한했지요。 그 누나가 들어 중매를 서면서 재산은 많지만 학력은 변변치 않은 여자를 신부감으로 소개했읍니다。 혼인조건은 신랑부모에게 집을 사주고 중매를 선 누나에게도 집을 한 채 사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교환하고 결혼날짜를 받는 도중에 그 누나가 자동차를 한대 사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부쪽 집안에서 화가 나서 「이 혼인 안해도 좋다」고 나왔지요。 신랑될 남자는 처음부터 여자에게 마음이 없었구요。 결국 파혼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미 사준 집이며 예물이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말썽이 생겨 저희를 찾아왔읍니다。

그런가 하면 혼수문제로 이혼을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생기는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양가 부모를 포함해서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근검과 절약정신을 앞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요식: 여성개발원에서는 지난해 20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 5백명을 대상으로 약혼이라든가 함 보내기 등 구체적인 혼인절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읍니다。 혼인절차에 따르는 여러 문제 가운데 [illegible] 결혼식이 54.2%、 신랑측에서 요구하는 예단이 73.6%、 필요없는 예물이 53%、 필요치 않은 혼수가 51% 등으로 나타났읍니다。 [illegible] 혼수준비에서 예단마련이 88.4%나 되어 혼수준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호화혼수는 망국의 풍조

◉… 발제 : 최래옥(한양대 교수 국문학) …◉
◉… 사회 : 송정숙(서울신문 논설위원) …◉
◉… 토론 : 최근덕(성균관대 교수·유학) …◉
◉… 배성심(한국부인회 법률상담실장) …◉
◉… 이요식(여성개발원 교수) …◉
◉… 이길표(성신여대 교수·가정학) …◉
◉… 노신영(방청객) …◉

정화지 2000 년에서 발췌

세태 따르는 부모들이 자성해야

이길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함을 보내는데 있어서 청홍비단을 넣되 만약 두필을 넣을 형편이 못되면 청홍 종이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했읍니다。 각자 자기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혼인이라는 것이 이성의 결합이기 때문에 청홍의 종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엔 약혼할 때 함에다 저고리감을 넣어 보내는 풍습도 있지만 혼인 전에 그같은 물건을 보내 여자의 마음을 현란케 하는 것은 오랑캐 풍습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혼사를 두고 어떤 물품이 밖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어느 계층에서도 아름답지 못한 풍습으로 여겨졌읍니다。 함값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함속에 필요없는 물건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illegible]

송정숙: 전통사회에서 자성을 해야 합니다。 [illegible]

[illegible]

최근덕: 결국은 정신적 지주를 발굴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illegible]

노신영: 한국결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신영입니다。 [illegible]

日當歸 ‖ 일당귀

連載 栽培教室

87 新規會員을 爲하여

○生藥名=日當歸

○效用=溫性强壯藥으로서 貧血、產後에 쓰이며 鎭靜、通經藥으로 쓰인다。

1、性狀

日本에서는 山野에 자라는 것도 있지만 많이 재배하고 있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줄기의 키는 60～90㎝정도로 곧게 자라며 잎은 작은 여러갈래로 찢어지고 잎은 광택이 있으며 겹잎으로서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잎자루는 紫黑色이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複纖形花序로서 작고 흰 꽃이 많이 모여 피며 전초에서나 종자에서도 독특한 향기가 난다。

日當歸

2、栽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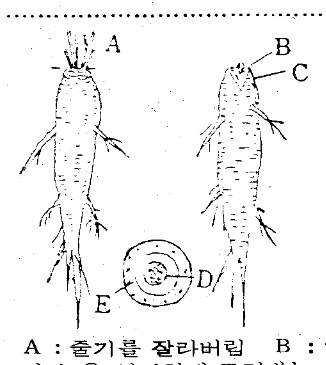
1、栽培適地

우리나라 中南部地方에서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적 특징으로서 4～6월 사이의 乾燥期에 생육이 약한 것을 경험한 바이다。 天惠的으로 자연적으로 비가 오는 것이 좋겠다。

土質은 表土가 깊고 排水가 잘되는 부드러운 砂質壤土 또는 粘質壤土가 적당하다。 質土에서는 뿌리의 발육이 좋지 않으며 모래땅에는 細根이 많이 생겨 우량품을 얻을 수 있다。 이 作物은 連作을 싫어하기 때문에 2～3년동안은 다른 작물을 [illegible]

2、採種法

採種圃는 西北向의 적합한 壤土 또는 砂質壤土로서 排水가 잘되는 곳을 선정하여 밑거름으로 두엄、깻묵、草木灰、過石등을 적당히 施肥하고 갈아서 흙과 잘 섞어 150～180㎝의 두둑을 만들고 60㎝내외、포기사이 30㎝내외의 간격으로 苗頭를 1포기씩 심는다。 [illegible]



A : 줄기를 잘라버림 B : 임자 눈을 안전하게 도려내는 위치 C,E : 불리한 위치 D : 임자 눈 도려내는 위치의 평면도

日當歸싹 오려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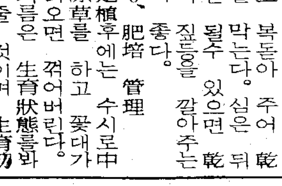
3、育苗移植法

본밭 10a에 대하여 苗床面積은 산파(散播)때에는 0.15～0.18a(5～6평) [illegible]

〈참고〉 育苗한 것 [illegible]

4、直播法

[illegible]



응애

5、定植

본밭에 定植할 時期는 3월하순～4월중순 [illegible]

6、定植後 管理

[illegible]

7、病蟲害

[illegible]

〈3면으로 계속〉